

금속노조, 20만 총파업 의결

56차 대대, 12기 1년 차 사업·투쟁·예산안 만장일치 결정 ... 김현호 감사 등 여섯 명 선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56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20만 총파업 조직 등 12기 1년 차 사업계획, 투쟁계획, 예산 등을 확정하고, 2022년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에 12기 1년 차 사업기조로 ▲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20만 총파업 성사 ▲30만 금속노조 조직 확대사업 전개 ▲투쟁사업장, 복수노조사업장, 외투기업 등 의제별 대응 강화 ▲청년 간부 육성, 산별교육시스템 마련 ▲노동자 정치세력화, 자주평화 통일사업 ▲현장토론 강화, 30만을 준비하는 조직혁신 등을 내세웠다.

노조는 이날 대대에서 12기 1년 차 사업기조를 구체화한 4대 영역 10대 사업목표를 확정했다. 첫째, 투쟁사업 영역 사업목표는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20만 총파업 성사 △대정부 7대 요구 쟁취 △2022년 임단투 승리 등이다.



둘째, 조직확대사업 영역 사업목표는 △30만 금속노조 확대를 위하여 미조직 사업 전면 조직화 △재별

정교섭 쟁취라는 사회 목표가 분명한 정치투쟁이라고 정의했다. 노조는 반드시 공장을 멈추는 강력한 투

사 노사협의회 대응 법제도 개선 투쟁과 전면 조직화 등이다.

셋째, 조직강화사업 영역 사업목표는 △청년간부 육성, 산별교육시스템 마련 △현장조합원 의견 수렴 현장토론 강화 △하반기 조직운영 혁신을 위한 현장단위 집중토론 전개 등이다.

넷째, 자주통일·정치사업 영역 사업목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로드맵 마련 △한반도 평화, 전쟁반대 등이다.

노조는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쟁취를 2022년 핵심 투쟁 목표로 결정했다. 노조가 노정교섭 쟁취를 위해 강력한 20만 총파업을 반드시 조직해 성사하자고 제안했고, 대의원들은 결의했다.

노조는 20만 총파업을 산별교섭 임단투와 연계하되, 노

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대정부 투쟁과 산별교섭·임단투를 연계하기로 했다. 노조는 노·사 산업전환 합의를 근거로 정부의 역할을 압박하기 위해 산업전환협약 강화와 쟁취 사업장 확대를 금속산별교섭 통일요구안으로 올리기로 했다.

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노동중심 산업전환 3대 의제 7대 요구’를 사회 쟁점화 한다. 노조는 총파업이 산업전환기 투쟁으로 당당히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금속노동자의 사회 선언이며, 전환기 제조업 위기는 미조직 노동자와 지역사회 문제임을 전 사회에 알리는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정교섭을 사회적 대화 활성화나 산업평화 전제 개념이 아니라, ‘노동중심 산업전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협의 틀이라고 규정했다. 의견수렴 수준을 넘어 정책 수립·집행·점검 단계까지 노조의 대등한 개입을 보장하는 협의 틀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업종·지역별 등 중층 협의 틀도 요구한다.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전환 위기 노동자·취약계층 온전 보호 ▲재벌 이익 극대화, 저임금·불안정노동 확대 저지 ▲고용안정·노동안전 보장, 양질 일자리 확보 ▲기후정의 원칙 따라 재벌·대기업 책임 의무 부과 ▲사회양극화 심화 재벌독점, 불공정 거래 해소 ▲중소·중견 제조사업장 산업 역량 강화 ▲산업·업종·지역 등에서 노동대등 참여 중층 보장 등을 노조가



요구하는 ‘노동중심 산업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해 사회쟁점화하고 노정교섭에서 쟁취할 3대 의제 7대 요구도 결정했다.

3대 의제는 ▲전환기 위기로부터 노동자·취약계층 보호 ▲재벌 중심 독점체제·불평등 타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조할 권리 확보 등이다.

이에 따른 7대 과제는 △전환기 총고용 보장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 △불법파견 철폐 △불법 탈법 경영승계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 노동법 개정 △산별교섭 제도화 등이다.

한편, 노조 대의원들은 이날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12기 감사위원을 선출했다.

12기 노조 감사위원에 기호 2번 김현호(현대차지부), 기호 6번 금재호(울산지부), 기호 4번 문윤환(현대차지부), 기호 3번 박민구(현대차지부), 기호 5번 노한균(현대차지부), 기호 1번 허준(현대차지부) 조합원 등 (득표순) 여섯 명이 찬반투표 끝에 당선됐다.